

해외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설계

- 날짜 : 2022년 2월 16(수) ~ 17일(목)
- 주최 :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재진입 준비사업단
- 후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제1회 국제학술대회 해외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설계

- 날짜: 2022년 2월 16일(수) ~ 17일(목)
- 주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재진입 준비사업단
- 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1일차: 2022년 2월 16일(수)

개회식	
사회: 강은진(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9:00-9:20	개회사 장경준(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소장)
	축사 정병호(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한국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개발 온라인 강좌 소개 김은진(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미주 지역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과 쟁점	
사회: 김소혜(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09:20-09:40	북미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추세 조항태(미네소타대)
09:40-10:00	Assessing the achievements of Korean Studies in South America 임윤정(상파울루대)
10:00-10:50	종합 토론 좌장: 오형엽(고려대) 토론: 민원정(칠레가톨릭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10:50-11:00	휴식
동아시아 지역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과 쟁점	
사회: 이송희(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11:00-11:20	중국에서의 한중 통번역 교육과 연구의 실제 양뢰(북경제2외대)
11:20-11:40	대만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진경지(대만국립정치대)
11:40-12:00	일본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와타나베 나오키(무사시대)
12:00-13:00	종합 토론 좌장: 양원석(고려대) 토론: 전영근(광동외대), 이상준(난양공대), 타이라 카오리(간다외대)
13:00-14:00	점심 식사

동남아시아·남아시아·중앙아시아 지역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과 쟁점	
사회: 김여주(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14:00-14:20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및 전망 썬 티 흐엉(하노이국립대)
14:20-14:40	Korean Studies in India: Current Scenario & Future Prospects 니르자 사마즈달(네루대)
14:40-15:00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백태현(중앙아시아 한국대)
15:00-16:00	종합 토론 좌장: 최귀묵(고려대) 토론: 장호종(카자흐 국제관계대), 에바 라티파(국립인도네시아대), 공평 소파(송클라대)
16:00-16:10	휴 식
유럽 지역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과 쟁점	
사회: 손혜진(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16:10-16:30	러시아 한국학의 현황: 다면성을 고려한 개관과 분석 구리예바 아나스타시아(상페테르부르크국립대)
16:30-16:50	유럽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중·동유럽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김소영(소피아대)
16:50-17:40	종합 토론 좌장: 김종훈(고려대) 토론: 김혜정(살라망카대), 안드레아 드 베네디티스(베네치아대)

□ 2일차: 2022년 2월 17일(목)

서적 3종 출판 워크숍	
사회: 이송희(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9:20-9:30	국영문 연구서·소스북 개요 및 에디터 소개 장경준(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소장)
9:30-10:00	영문 연구서 기획안 발표 최귀묵(고려대)
10:00-10:30	국문 연구서 기획안 발표 김정숙(고려대)
10:30-11:00	소스북 기획안 발표 송혁기(고려대)
11:00-12:30	종합 토론 뵘케 데네케(미국 MIT), 안진수(미국 버클리대), 이상준(싱가포르 난양공대), 유영주(미국 미시간대), 변우영(미국 오하이오주립대)
12:30-14:00	점심 식사

글로벌 신진연구자 학술포럼			
	한문학·고전문학 사회: 이송희	현대문학·문화컨텐츠 사회: 김소혜	한국어학·한국어교육학 사회: 손혜진
14:00-14:20	연보에서의 世系·紀年· 記事의 역할과 의미 최혜미(고려대)	일제시기 대만과 한국 초등학교 창가집 비교 -『공학교창가집』과 『신 편창가집』을 중심으로 왕시문(정치대)	현대 한국어 ‘섭섭하다’ 와 ‘서운하다’의 의미 연구 박아름(고려대)
14:20-14:40	丁酉再亂 종전 이후 重 臣들이 주도한 조선의 관각 문화와 그 시대적 함의 심규식(고려대)	<春香傳> 英譯本 研究: 춘향의 형상화 방식과 번역 전략을 中心 으로 이창희(고려대)	불가시적인 사동화의 ‘시키-’ 채예나(도쿄대)
14:40-15:00	종합토론 1	종합토론 1	종합토론 1
15:00-15:20	두목의 「장보고·정년 전」 창작 배경 고찰 육가(남경대)	‘그녀가 스스로 복수하 고 악한 세력을 제거하 려고 한다’ - 중국 越 劇 <춘향전>의 “變”과 “不變” 이금양(사천외대)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근거한 중국 연변조선 어 단모음 체계의 구축 허진(도쿄대)
15:20-15:40	景幾體歌 <關東別曲> 의 공간표상에 대한 정 치적 독법 박영재(고려대)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 의 장혁주 문학이 지닌 영향력과 그 매력 조가유(경북대)	한국어교육에서의 메타 버스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국외 한국어 학 습자를 대상으로 민경아(고려대)
15:40-16:00	<형제투금>, <지성이면 감천> 설화의 형성 재 고: 두 설화의 상호 교 차 전승 가능성 조보운(고려대)	수사반장, 한국형 탐정 의 탄생 송치혁(고려대)	종합토론 2
16:00-16:20	종합토론 2	종합토론 2	
폐회식 사회: 강은진(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16:20-16:20	폐회사	송혁기(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부소장)	

The First Annual Conference of OCKS

The Now and Future of Global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Outreach Center for

Korean Linguistic,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 Korea, 02841

+82-2-3290-5291

Feb. 16-17, 2022

Seoul, Online (via ZOOM)

□ Day 1 (Feb. 16, 2022) "The Now and Future of Global Korean Studies"

Opening	
Moderator: Kang Eunjin (OCKS)	
9:00-9:20	Opening Ceremony Chang Kyong-Jun (Director, OCKS)
	Congratulatory Remarks Jung Byeong-Ho (Dean, Korea Univ. College of Liberal Arts)
	Brief Introduction to Online Lecture Series of OCKS Kim Eunjin (OCKS)
Section 1. Americas	
Moderator: Kim So Hye (OCKS)	
09:20-09:40	Status and Tren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North America Cho Hang-tae (Univ. of Minnesota)
09:40-10:00	Assessing the achievements of Korean Studies in South America Im Yun-jung (Univ. of São Paulo)
10:00-10:50	Panel Discussion: Oh Hyung-yup (Chair, Korea Univ.), Min Won-jung (UC Chile), Shin Jeong-soo (AKS)
10:50-11:00	Break
Section 2. East Asia	
Moderator: Lee Songhee (OCKS)	
11:00-11:20	Education and Research of Chinese-Korea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Present-day China Yang Lei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
11:20-11:40	Trends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Education and Research in Taiwan Chen Qing Zhi (National Chengchi Univ.)
11:40-12:00	Trends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Education and Research in Japan Watanabe Naoki (Musashino Univ.)

12:00-13:00	Panel Discussion: Yang Won-seok (Chair, Korea Univ.), Quan Yong Gen (Guangdong Univ. of Foreign Studies), Lee Sang-joon (Nanyang Technological Univ.), Kaori Taira (Kanda Univ. of International Studies)
13:00-14:00	Break
Section 3. Southeast Asia, South Asia, Central Asia Moderator: Kim Yujoo (OCKS)	
14:00-14:20	Trends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Education and Research in Vietnam Tran Huong (State school in Hanoi)
14:20-14:40	Korean Studies in India: Current Scenario & Future Prospects Neerja Samajdar (Jawaharlal Nehru Univ.)
14:40-15:00	Trends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Education and Research in Central Asia Back Tae-hyeon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15:00-16:00	Panel Discussion: Choi Kwi-Muk (Chair, Korea Univ.), Jang Ho-jong (Kazakh Ablai Khan Univ.), Eva Latifah (Universitas Indonesia), Khongpheng Sopha (Prince of Songkla Univ.)
16:00-16:10	Break
Section 4. Europe Moderator: Son Hyejin (OCKS)	
16:10-16:30	An Overview and Analysis of Korean Studies in Modern Russia Through Diverse Perspectives Anastasia Guryeva (Saint Petersburg State Univ.)
16:30-16:50	The Now and Fu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Kim So-young (Sofia Univ.)
16:50-17:40	Panel Discussion : Kim Jong-Hoon (Chair, Korea Univ.), Kim Hye-Jeoung (Universidad de Salamanca), Andrea De Benedittis (Univ. of Naples L'ORIENTALE)

□ Day 2 (Feb. 17, 2022) "Workshop & Global Young Scholars Forum"

[Session 1] Publication Workshop of OCKS			
Moderator: Lee Songhee (OCKS)			
9:20-9:30	Introduction Chang Kyong-Jun (Director, OCKS)		
9:30-10:00	OCKS Book Series for English Readers Choi Kwi-Muk (Korea Univ.)		
10:00-10:30	OCKS Book Series for Korean Readers Kim Chung-Sook (Korea Univ.)		
10:30-11:00	OCKS Book Series for Source Book Song Hyok-Key (Korea Univ.)		
11:00-12:30	Panel Discussion: Weibke Denecke (MIT), An Jin-Soo (UC Berkeley), Lee Sang-Joon (Nanyang Technological Univ.), Ryu Youngju (Univ. of Michigan), Danielle O. Pyun (The Ohio State Univ.)		
12:30-14:00	Break		
[Session 2] Global Young Scholars Forum			
Section	Sinographic / Classical Literature	Modern-Contemporary Literature / Cultural Contents	Korean Linguistics /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Moderator	Lee Songhee (OCKS)	Kim So Hye (OCKS)	Son Hyejin (OCKS)
14:00-14:20	연보에서의 世系·紀年·記事의 역할과 의미 최혜미(高麗大)	일제시기 대만과 한국 초등학교 창가집 비교 -『공학교창가집』과 『신편창가집』을 중심으로 王詩雯(政治大)	현대 한국어 ‘섭섭하다’와 ‘서운하다’의 의미 연구 박아름(高麗大)
14:20-14:40	丁酉再亂 종전 이후 重臣들이 주도한 조선의 관각 문화와 그 시대적 함의 심규식(高麗大)	<春香傳> 英譯本 研究: 춘향의 형상화 방식과 번역 전략을 中心 으로 이창희(高麗大)	불가시적인 사동화의 ‘시키-’ 蔡芸娜(東京大)
14:40-15:00	Discussion 1	Discussion 1	Discussion 1

15:00-15:20	두목의 「장보고 정년전」 창작 배경 고찰 郁嘉(南京大)	‘그녀가 스스로 복수하고 악한 세력을 제거하려고 한다’ — 중국 越劇 <춘향전>의 “變”과 “不變” 李金陽(四川外大)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근거한 중국 연변조선어 단모음 체계의 구축 許秦 (東京大)
15:20-15:40	景幾體歌 <關東別曲>의 공간표상에 대한 정치적 독법 박영재(高麗大)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의 장혁주 문학이 지닌 영향력과 그 매력 曹家瑜(慶北大)	한국어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민경아(高麗大)
15:40-16:00	<형제투금>, <지성이면 감천> 설화의 형성 재고: 두 설화의 상호 교차 전승 가능성 조보윤(高麗大)	수사반장, 한국형 탐정의 탄생 송치혁(高麗大)	Discussion 2
16:00-16:20	Discussion 2	Discussion 2	
Closing Moderator: Kang Eunjin (OCKS)			
16:20-16:30	Closing Ceremony Song Hyuk-Key (Vice Director, OCKS)		

목 차

□ 1일차: 2022년 2월 16일(수)

북미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추세 조항태 (미네소타대)	1
Assessing the achievements of Korean Studies in South America 임윤정(상파울루대)	4
중국에서의 한중 통번역 교육과 연구 실제 양뢰(북경제2외대)	5
대만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진경지(대만 국립정치대)	6
일본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와타나베 나오키(일본 무사시대)	7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및 전망 쩨 티 흐영(하노이국립대)	11
Korean Studies in India: Current Scenario & Future Prospects 니르자 사마즈달(네루대)	12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백태현(중앙아시아 한국대)	20
러시아 한국학의 현황: 다면성을 고려한 개관과 분석 구리예바 아나스타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23
유럽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중·동유럽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김소영(소피아대학교)	24

□ 2일차: 2022년 2월 17일(목)

<한문학·고전문학>

연보에서의 世系·紀年·記事의 역할과 의미 최혜미(고려대)	29
丁酉再亂 종전 이후 重臣들이 주도한 조선의 관각 문화와 그 시대적 함의 심규식(고려대)	30
두목의 「장보고·정년전」 창작 배경 고찰 옥가(남경대)	31
景幾體歌 <關東別曲>의 공간표상에 대한 정치적 독법 박영재(고려대)	32
<형제투금>, <지성이면 감천> 설화의 형성 재고: 두 설화의 상호 교차 전승 가능성 조보운(고려대)	34

<현대문학·문화컨텐츠>

일제시기 대만과 한국 초등학교 창가집 비교 -『공학교창가집』과 『신편창가집』 을 중심으로 왕시문(정치대)	37
<春香傳> 英譯本 研究: 춘향의 형상화 방식과 번역 전략을 中心 으로 이창희(고려대)	38
‘그녀가 스스로 복수하고 악한 세력을 제거하려고 한다’ - 중국 越劇 <춘향 전>의 “變”과 “不變” 이금양(사천외대)	39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의 장혁주 문학이 지닌 영향력과 그 매력 조가유(경북대)	40
수사반장, 한국형 탐정의 탄생 송치혁(고려대)	41

<한국어학·한국어교육학>

현대 한국어 ‘접접하다’와 ‘서운하다’의 의미 연구 박아름(고려대)	43
불가시적인 사동화의 ‘시키-’ 채예나(도쿄대)	44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근거한 중국 연변조선어 단모음 체계의 구축 허진(도쿄대)	46
한국어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민경아(고려대)	47

1일차: 해외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설계

북미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추세

조항태 (미네소타대학교)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 회장을 맡은 미네소타 대학교 조항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발제를 하겠습니다.

냉전 시대에 시작된 북미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주 더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의 설립과 함께 지난 30년 가까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북미대학들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미국 현대 언어학회(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어 관련 수강생 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은 후 실용 학문에 밀려 인문학 교육이 위축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학비 상승과 취업에 대한 압박으로 외국어교육을 사치스러운 과목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미국 대학생 100명 중 9.1명이 외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2016년에는 7.5명만이 외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2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한국어 수강생의 수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95%나 증가하여 다른 외국어들에 비해 압도적인 성장을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어는 미국대학에서 열한 번째로 수강생 수가 많은 언어입니다.

코비드 상황 때문에 우리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는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개최된 제26회 연례학술회에 앞서 학회 차원에서 각 대학의 한국어 담당 책임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에 소속된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두 달간 실시됐습니다.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106개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고 1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 없이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120개 넘는 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90개 대학이 research one이라고 불리는 연구중심대학이고 이 대학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flagship universit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대학은 2년제 community college 이거나 규모가 작은 사립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북미에 44개 대학이 한국어 전공 또는 한국어에 초점을 둔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전공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16,000명의 대학생이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대 언어학회 (Modern Language Association)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2016년 조사 결과인 13,936명에서 약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으로 일부 대학들은 일시적으로 등록 학생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팬데믹 후에 조사하면 약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내에 한국어가 개설된 정규 초중등학교는 64개 학교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등록 학생은 8,000여 명입니다.

지난 30년간 북미 한국어 교육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학생 구성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수 대학의 한국어프로그램 학습자가 교포 학생 중심의 계승어 학습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북미대학이 외국어 학습자 중심 또는

외국어 학습자와 계승어 학습자가 다른 트랙에서 공부하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다양성입니다. 한인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부와 동부해안의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에서 주로 제공되던 한국어 강좌가 지금은 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들의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아시아계 미국 학생은 물론 흑인,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매개로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학생들의 숫자가 남학생들의 숫자를 압도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생들의 성비가 6대4로 여학생이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여학생의 비중이 높은 인문대학에 소속된 이유도 있고 여학생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원인도 관련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현재 대학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북미대학의 한국어 학습자의 성비는 대략 8대2 정도로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북미대학에서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두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승어 학습자들의 경우 영어에 서툰 가족과 더 나은 소통이나 국제결혼 또는 한국인과의 교제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꼽으라면 첫째는 한국의 대중문화이고 둘째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기술과 라이프스타일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북미 전체의 시골 마을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요동치는 북미 관계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치, 군사, 인권에 대한 뉴스가 미국 대중매체에 노출빈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관심도 올라갑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와 북한 이슈가 북미 대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이들을 한국어 강좌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중성을 바탕으로 북미대학들이 한국어와 한국학을 중요한 지역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미대학의 외국어 수업은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문화나 문학 수업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국어 강좌와 한국문화 또는 한국문학을 예로 들면 대학 신입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먼저 듣고 그 후에 한국문화나 문학 수업에 흥미를 느껴 수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북미의 거의 모든 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먼저 개설하고 한국어 강좌가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이르면 한국 문화와 문학 수업을 개설해 왔습니다. 즉 한국어 강좌를 다른 한국학 과목으로 가는 관문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또는 북한 문제에 먼저 관심이 생겨 관련 수업을 들은 후 한국어와 한국문학 수업을 듣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한국어 수강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또한 자기 주도형 한국어 독학 학습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에 등록하기 전에 이미 한국과 한국문화의 영향으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좀 더 체계적인 한국어 공부를 위해 찾아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주도형 독학 학습자의 증가는 한국어 교수법과 커리큘럼 측면에서 또 다른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이런 자기 주도형 독학 학습자의 증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북미 한국어 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빠르고 많이 늘어나는 계층은 대중문화에 민감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고등학교에 정규과목으로 한국어가 개설된 곳이 턱없이 부족해 잠재적 한국어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 밖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독학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정규 학과목으로 한국

어를 중고등학교에서 수강한 후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에서는 언어 숙달도가 높은 학생들을 받아 저학년부터 교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언어 숙달도가 높은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차기 한국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큼니다. 따라서 K-12와 대학의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잘 연계된 초 중고 대학 이상 (K-16 and beyond) 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긴급하고 절실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연구중심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가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강생들을 모으기 쉽다는 이유로 북미의 한국어학과는 전체 학생 수가 많고 규모가 큰 연구중심대학들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research one 대학에는 한국어는 물론 다른 한국학 강좌들도 이미 정착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학부 중심대학들은 보통 한 학년에 500명 내외 전교생이 2,000명 내외이고 교수들이 연구보다는 학생 교육에 역점을 두는 대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들은 다른 연구중심대학의 학부 학생들보다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미 한국어 교육은 가까운 미래에 학부 중심대학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북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간략한 발제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Assessing the achievements of Korean Studies in South America

Yun Jung Im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São Paulo)

Korean Studies in South America dates back to la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but its development still can be described as sporadic, scattered and almost entirely dependent on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Despite the South Korea's dramatic economic development and heightened visibility in several fields, most significant South American academic activities in Korean Studies have been possible only thanks to Korean institutions' funding programs.

This work intends to map out the state-of-the-art of Korean Studies in South America, assessing some key factors and events that marked its slow and difficult development up today, pointing out major achievements, key problems and challenges, focusing on some most meaningful experiences so far, namely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anguage & Literature major at the Universidade de São Paulo (Brazil),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at the Instituto Nacional de Educación Superior "Dr. Raúl Peña" (Paraguay), of the Chair of Korean and East Asian Studies (CECEA) at the Universidad de Costa Rica, and of the Korean Compared Studies Center at the Universidad Central de Chile.

Among many, one important reason for the hindrance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higher education & research activities in this region are concentrated in public (and tuition free) universities, wholly dependent on federal/local governments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that get worse year after year. Through analyzing this and other factors, as well as some cases that marked this bumpy trajectory, it will be possible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more clarity, to assess its achievements and discuss its possible alternatives.

중국에서의 한중 통번역 교육과 연구 실제

양뢰(북경제2외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다문화교류가 나날이 빈번해지면서 통번역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 대학교에서의 전문통번역 인재 육성을 점점 전문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2009년에 중국의 한국어통번역석사학위가 설치되었다. 본 발표문은 최근 10년간 중국 정부기관과 한국어교육학계가 시도해 온 통번역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 1] MTI 인재 육성
- 2] 통번역 교재 개발
- 3] 번역프로젝트 설립
- 4] 통번역대회 개최

이상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과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대만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진경지(대만국립정치대)

대만에서 한국학 전문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1956년에 국립정치대학교 동방어문학과에서 최초로 한국어문 전공이 설립되었다. 2000년에는 한국어문학과로 승격되었으며, 2012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도 개설되었다. 지금까지 대략 66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보아도 대만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다. 그러나 대만에서의 한국학 교육이 늘 순조롭게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타학과에서 본 학과로 전과하는 학생보다 본 학과에서 타 학과로 전과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1990년 후반부터 불어닥친 한류 열풍은 한국학 교육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의 한국학 학습 성향을 이루게 해 주었다.

한국학 교육의 발전에 따라 한국학 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학 전문 연구 단체인 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와 한국어문교육학회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1980년에 한국 언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 및 국내외 기관과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된 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는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이면서 회원수도 가장 많고 회원 소속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2018년에 새로 창립된 한국어문교육학회는 기초 학문 연구와 달리 한국학 교육을 주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열로 인해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저출산 여파로 대만에서의 한국학 교육도 ‘저출산 쓰나미’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립대학의 신입생 모집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고 유지하려면 대학 교수자의 교수법과 강의 내용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대만 교육부의 제한을 받아 인적, 물적인 측면에서 사립대학에 비해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 국립정치대의 난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와타나베 나오키(무사시대)

일본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

와타나베 나오키 (일본 무사시대)

1965년 도쿄 생, 게이오대 정치학과 졸업, 동국대 국문과 석박사, 고려대 원어민강사,
UCSD 객원연구원, 고려대 초빙교수, 일본 국내외 학회 이사 및 각종 시험 위원

[학문분야]

- 『日本における韓国・朝鮮研究研究者ディレクトリ』(일한문화교류기금, 2001+2004+2007)
- 2007년도:한국학 전공 대학 교수·대학원생 (박사과정 이상) 1180명 -> 541 회답
 - 한국사 (동양사, 고고학, 미술사, 사상사, 유교·불교 연구)
 -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언어학)
 - 정치학, 국제관계
 - 경제학, 경영학
 - 한국문학 (비교문학·문화)

[학회]

- 朝鮮学会 (語学・文学・歴史学 외)
- 朝鮮史研究会 (関東・関西)
- 朝鮮語研究会
- 朝鮮語教育学会
- 現代韓国朝鮮学会 (社会学・人類学)
- 한국을 비롯 기타 외국의 학회에서도 활동

[대학] (I)

- 한국학과(코스)가 있는 대학은 소수 (밑줄은 대학원 전공과(코스)가 있는 대학)
 - 東京大 (本郷・駒場)・東京外大・大阪大 (大阪外大)・京都大・九州大
 - (北海道大・東北大・一橋大・名古屋大)
 - 早稲田大・慶應大・立教大・法政大 (・明治大) / 同志社大・立命館大
 - 神田外大・目白大・独協大・福岡大
- 대규모 대학 어학 교수 - 각자 전공분야를 교양 수업에서 문화론으로
 - 東海大・日本大・近畿大
- 소규모 대학 어학 교수 - 어학 외에 전공 분야가 아닌 것도 가르침.
 - 武蔵大 외 다수 (東京芸大 - 음악 / 미술)
- [참고] Korea Foundation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대학 지원 - 미국에 비해서 규모는 작음

[대학] (2)

- (입학시)
 - 고등학교 재학시에 이미 한국어 학습, 각 대학의 특차 전형, TOPIK 5급-6급 (5급은 대학원 진학 수준).
 - 직접 한국 대학에 진학 (고등학교 글로벌 코스)
 - 大学入学共通テスト「外国語」
 - 영어(475만), 독일어(109), 프랑스어(88), 중국어(625), 한국어(109) 중 택1 (숫자는 작년도)
 - 조선학교 (6.15공동선언(2000) 이후 '한국어' 교육 추진. 한국인 감사 채용도.)
- (재학시)
 -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에는 역사, 문학, 문화 관련 수업 외에도 특별한 분야를 가르칠 수도.
 - 세대 차이
 - (원어민도 포함해서) 교수가 아는 한국과 학생들이 아는 (알고 싶어하는) 한국의 차이
 - Youtube 기타 프로그램의 다양화.(누가 안 시켜도 드라마에 자막을 달고 올리는 사람들은 있음. 자막 없이 한류 스타들 동영상이나 '먹방' 등을 보면서 한국어 학습 - 대학이 개입할 여지는 없음.)
 - (졸업시)
 - 한국 교육부 국비장학생 (일본에서는 연 11 명 - 분야별 전형)

[학부 졸업논문]

- 4학년 학생이 1년에 걸쳐서 지도를 받고 20,000자 내외의 논문을 작성, 제출 (2022.1에 제출된 논문)
 - スクリーンクォーターから見る韓国映画産業の発展
 - 세월호沈没事故からみる現代韓国
 - 人権と国民性から考える韓国の「兵役制度」
 - 韓国における早期英語教育
 - 生活韓国
 - 朝鮮半島からの引揚
 - アモーレパシフィック論——韓国コスメの海外進出
 - 韓国における女性嫌悪問題
 - 韓国の伝統的服飾「ボジャギ」
 - ハングル書芸
 - 韓国弓術
 - ポン・ジュノ映画論
 - 現代韓国恋愛ドラマ論
 - 記録とドラマから見る光海君
 - 『ファン・ジニ』ドラマ論
 - 韓国の児童虐待
- 한류 - 마케팅론에서 작품론으로 (K-pop / 동방신기, 소녀시대 -> BTS)
- 주제와 남녀 차이 (남학생 - 역사문제, 일본 우파적 경향)
- 선행연구 부족: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선행연구가 제한적(주제, 시대) -> 번역, 자막, 작품 제작도
- 이런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 상상 가능. -> 고려대 재학중 학부생/대학원생의 취향. 인기학과가 꼭 '한국학'만이 아닐 수도.

[교재 개발의 전제]

- 강의 동영상 공개
 - 이미 세계 각 대학들이 추진중
 - 기존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업에 각국어 자막을
 - 길이도 다양했으면 - 일반 수업 길이, 20-30분 단편)
- 교류 수업의 추진 (콘텐츠보다도 시간표 외 기술적 측면이 중요)
 - 학생이 왕래해서 하는 교류(立命館大学キャンパスアジア)
 - 시간을 맞춰서 원격회의로 교류(on-line/off-line)
- 어학연수/학부 외국인 학생/대학원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와 의견 수렴, 다양한 교육 지원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및 전망

전 티 흐영(하노이국립대)

베트남에서의 한국학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는지와 각 발전 단계별 주요 내용을 통계를 통해 분석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베트남에서의 한국학이 무엇을 이루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n Studies in India : Current Scenario & Future Prospects

Dr. Neerja Samajdar
Associate Professor
Centre for Korean Studie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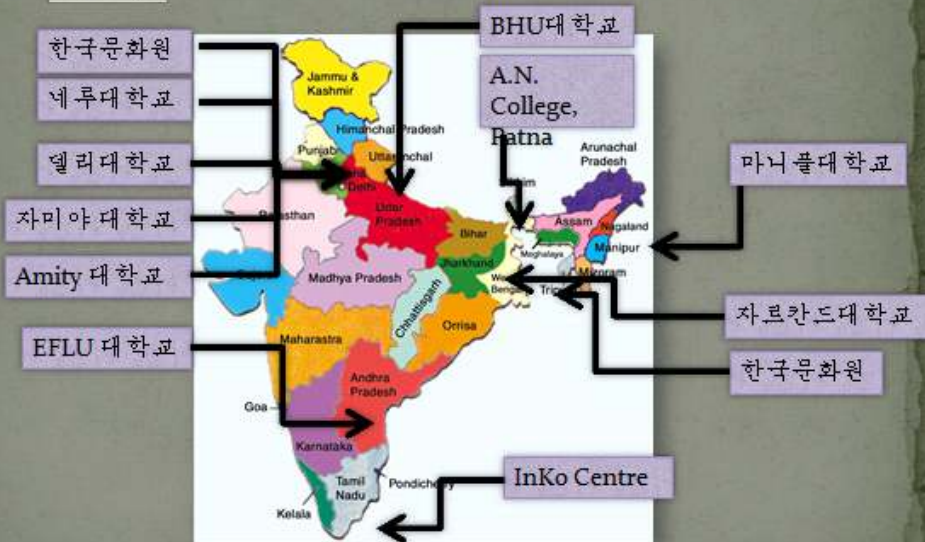
Basic Structure of Korean Studies Courses in India :

- 박사 과정 Ph.D. Course/M.Phil. Course
- 석사 과정 Master Course
- 학자 과정 Courses
- 수료 과정 Certificate Courses/Diploma Courses
- 세종학당 과정 Sejong Institute Courses

Supportive Organizations :

-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 Korean Cultural Centre (KCC)
- Korean Tourism Organization (KTO)
- Korea Foundation (KF)
-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인도에서 한국어/학 교육 기관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Korean in India

- In the new National Education Policy Indian government has included the Korean language at the secondary level among the foreign languages to be offered to Indian students. Apart from Korean, other foreign languages that will be offered are Japanese, Thai, French, German, Spanish, Portuguese, and Russian.
- Korean Cultural Centre (India) KCCI – Signed MOU with 105 for providing Korean culture experience and Korean language demonstration classes.
- In 2015, the Korean language demonstration class started with 2 schools only and now it has 17 schools.



Contd....



- Currently, KCCI-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Course - 23 Korean language teacher candidates - 15-week intensive course - 17th August to 24th December.
These Indian teachers will be then sent to schools and colleges.
- KCCI is opening 15 weeks online free hobby class for the Korean language from 18th August.
- South Korean Ambassador to India H.E. Shin Bong-Kil on August 3, 2020, said that Seoul is considering to extend help to establish a Korean language institute in the national capital.



Jawaharlal Nehru University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Korean Language

1976-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 Course

1995-Establishment of Bachelor + Master (Integrated Degree) in Korean Language, Literature, Culture Studies

2013-Establishment of M.Phil. & Ph.D. Degree in Korean Language, Literature, Culture Studies

2019-Establishment of Dual Degree Program – (M.Tech + Master) Engineering & Korean Language, Literature, Culture Studies

2020- NEP application plan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Units

2016-2021-Core University Project (AKS) Multidisciplinary Research on Korean Studies in India & South Asia



Jawaharlal Nehru University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Korean Language

1976-Establishment of Korean Language Course

1995-Establishment of Bachelor + Master (Integrated Degree) in Korean Language, Literature, Culture Studies

2013-Establishment of M.Phil. & Ph.D. Degree in Korean Language, Literature, Culture Studies

2019-Establishment of Dual Degree Program – (M.Tech + Master) Engineering & Korean Language, Literature, Culture Studies

2020- NEP application plan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Units

2016-2021-Core University Project (AKS) Multidisciplinary Research on Korean Studies in India & South Asia



Indian Government schemes for ICT in Education:

- Rashtriya Madhyamik Shiksha Abhiyan (RMSA)
- ✓ State Government & Union Territories Administrations
- ✓ Smart School
- ✓ Teacher's enhanced roles
- ✓ E-Contents, Central Institute of Technologies (CIET), 6 State Institutes of Education Technologies (SIETs), 5 Regional Institutes of Education (RIEs)

Smart Schools

- Establishment of District Schools
- Role Model/technology demonstrator
- National Awards for teachers



ICT promotion by UGC

- **UGC (University Grant Commission)** : Established in November 1956 as a statutory body of the Government of India through an Act of Parliament for the coordination, determination and maintenance of standards of university education in India*
- Approved On-line courses scheme 2018
- 4 quadrants : Video lectures, E-content, Self Assessment and discussion forum
- **NAAC Accreditation** : An autonomous body established by the University Grants Commission (UGC) of India to assess and accredi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country** (Score 3.26 or 4 point scale)



JAWAHARLAL NEHRU UNIVERSITY : A++ grades
(3.77)

*<https://www.ugc.ac.in/page/Genesis.aspx>

**<http://www.naac.gov.in/aboutus.asp>

Jawaharlal Nehru University



- Promoting ICT in Bachelor, Master, M.Phil and Ph.D. courses
- Special Centre for E-Learning (MOOC)
- Skype interviews of M.Phil & Ph.D. dissertation viva
- Foreign Language Education – 15 foreign languages
- E-lessons & E-reading materials

AKS (Academy of Korean Studies) support

- Project Name
“Emerging Korea & Korean Studies In India and South Asia”
- Countries : India, Sri Lanka, Bangladesh, Pakistan, Nepal, Bhutan



AKS (Academy of Korean Studies) support

- Project Name
"Emerging Korea & Korean Studies In India and South Asia"
- Countries : India, Sri Lanka, Bangladesh, Pakistan, Nepal, Bhu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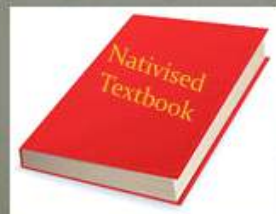
AKS (Academy of Korean Studies) support

Three major areas

Korean Culture

Korean Literature

Korean Studies



Nativised E-Contents



The Future

- India-Korea New Educational Partners – Korean History & Cultural contents in Indian textbooks (NCERT-AKS)
-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Educational courses and Course restructuring in Special Education.
- Multidisciplinary Dual Degree course including Korean studies

Conclusion – Beginning point

- Challenges : Availability of adequate infrastructure
- Teacher's training and qualification



Early Stage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교육·연구 현황과 쟁점(초록)

백태현(중앙아시아 한국대학)

1.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 및 교육 현황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 및 교육 현황은 세계 여타 지역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바로 그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다. 구소련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온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구소련의 한국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현황은 시기적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밖에 없다. 구소련 시기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비록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러시아의 전통적인 한국학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구소련 체제하의 체제 지향적인 학문의 한 영역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적 산물이었던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그 연구 및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미 내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노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937년 스탈린 정권시기에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현실적 처지가 그러했듯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또한 기초적 영역에서 미미하게 전개되었고,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독립 이전 고려인 연구는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연구자와 문인들의 역할이 컸다.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독립 이후 국내외에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독립 이전 중앙아시아의 여타 한국학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고, 역시 본격적인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독립 이후 활성화된 한국학 교육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한국학 교육은 권역별, 나라별로 그 지역적 특성이 있듯이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 교육 현황도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이 중앙아시아라는 전체로 묶을 수 없는 각기 다른 국가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구소련의 지배라는 역사적 유산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흔히 일컫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한국학 교육은 각기 다른 차별성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구소련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서 전개된 한국학 교육현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행해지는 한국학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이 아닌 일반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교육은 전문성의 확보가 그 목표라면, 일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일반화 및 대중화에 그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의 교육주체는 각 해당 대학이다. 그러나 일반 교육기관의 교육주체는 다양하다. 현지의 슈콜라(초중고등학교), 한국 정부에서 만든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만든 다양한 교육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특징

전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바, 중앙아시아 지역도 그 실정에 맞는 한국학의 교육 체계를 갖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학의 바람직한 토대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파악 및 진단을 위한 양면적 시각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중앙아시아 한국학 형성 과정에서는 한국측의 다양한 지원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 현지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 이루어 온 자생적인 역할도 컸다.

가. 근래 한국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가 다소 많이 설립되었다.

나. 대학의 전공학과가 늘어나면서 재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한류’의 영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 대학 한국학 전공학과들의 승패는 대학 당국의 적극적 의지와 유능한 교수요원의 확보가 그 관건이다. 특히 유능한 현지인 교수요원의 확보 없이는 학과의 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 한국학 발전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마.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많은 대학에서 부전공 혹은 제2외국어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각 대학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된 조정기를 거쳐 근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1) 문제점

독립 이후 전개된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교육 현장에는 아직도 구소련의 역사적, 제도적 잔재가 강인하게 기능하고 있다. 이것은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단점으로도 작용하여, 이 지역 한국학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뿌리 깊은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인 한국학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제 문제, 즉 현지 대학교육 시스템의 취약성, 만연된 교수요원의 부족 현상과 교수법 문제,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한국학 교재 및 부교재의 부족 등의 문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가. 전공학과가 개설된 여러 대학의 경우, 아직까지도 한국어 중심의 교과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대체로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다. 구소련 교육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기능하고 있다.

라. 한국학의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역량 이 있는 전문적 교수요원의 부족현상이다.

마. 한국학 교수요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한 문제이다.

2) 개선 방안

가. 올바른 한국학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및 표준 교과과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 만성적인 한국학 교수요원의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한국학 전공과정의 활

성화를 통한 차세대연구자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를 확산시켜 갈 수 있는 주요 지역별 ‘한국학 거점대학’의 육성이 시급하다.
- 라. 한국학 거점대학의 경우 교육과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 교수요원의 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마. 구소련 시기 이후 대학의 기능은 주로 ‘교육’에만 치중을 하였고, ‘연구’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허약한 편이었다. 한국학의 교육과 연구라는 양축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갈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교육 시스템 정착이 요구된다.
- 바.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교육 기관 및 연구자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4. 코로나19 이후 한국학 원격교육 및 온라인강의 현황

1) 문제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누적되어 왔던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의 제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된 원격교육 및 온라인강의의 현황은 교육적 기반이 허약한 상태 위에 코로나 19로 야기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겹쳐 예상치 못한 난제들이 생겨났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 및 ICT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는 온라인강의의 교육적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 열악한 ICT 인프라

나. 낮은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

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비교육적 환경의 조성

라. 교수자의 온라인강의 및 원격교육에 대한 준비도와 숙련도 문제

마. 온라인강의를 통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문제

바. 한국학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온라인강의를 통해 쉽게 찾아지지 않다는 문제점도 발생

2) 개선 방안

가. ICT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나. 변화된 교육적 환경을 선도해 갈 우수교수요원의 확보 문제

다. 온라인강의에 적합한 한국학 교재의 개발

라. 교수자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마. 학습자의 학업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

러시아 한국학의 현황: 다면성을 고려한 개관과 분석

구리에바 아나스타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본 발표는 1890년대부터 역사가 이어진 러시아 한국학의 현황에 대한 개관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의 결과로, 현재 한국학의 특징을 정하는 주요 양상들은 이의 역사와 역사에 따른 각 한국학 프로그램의 목적 등이다.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연구논문이 많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사실들을 현재를 설명하기 위한 정도로 적용하여 현재 러시아의 많은 한국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들과 한국학 연구가 있는 연구기관들의 특성을 분류해 보겠다. 발표의 내용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한국학 교육과 한국학 연구. 두가지를 서로 관련지어 소개하겠다.

한국학 교육: 한국학의 커리큘럼 (언어의 비중), 한국학과 관련된 전체적 활동, 학생들의 연구, 한국학 프로그램 졸업자들의 취업 등.

대학교에 있는 약 30개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서로 많은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나 20세기 중반 (모스크바)부터 발달되는 한국학 중심지가 있는가 하면 한러수교가 된 1990년후에 설립된 역사가 얼마안된 것과 신진 것도 있다. 오래된 역사일 수록 한국학 커리큘럼이 풍부하고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서 40개 정도 한국학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일 수록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 교육제도상 학생들이 1-2학년부터 연구논문을 쓴다. 연구도 러시아 동방학의 전통을 이어 일차자료, 원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많다.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되고 있다. 연구수준이 뛰어난 학생들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것이 많고 세계 학술대회에 참석하러 수상한 학생들도 있다. 이와 동시에 취업할 때 연구분야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교육과정에서 발달된 분석력을 실무분야에서 적용하는 자가 대부분으로 남아 있다.

한국학 연구의 배경과 현황: 연구의 특징, 연구와 관련된 활동. 학술대회, 학회, 학술지 등.

러시아 한국학의 주요 특징은 일차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다. 한국의 연구자료들에 대한 한정된 접근의 상황에서 한국학이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20세기말-21세기초까지 한국학의 많은 분야에서 크나큰 연구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 통사, 한국고전문학사, 정차사, 한국어 문법이론 등의 저서가 많이 나왔다. 역사, 문학 등의 고전 일차자료 많이 번역되고 연구되었다. 한국고저문학의 주요 소설과 시가 번역되고 대다수로 판매되었다. 현재 현대사, 현대문학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고전에 대한 연구도 남아 있고 새 박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러시아 한국학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기재하고 있다. 참고자료와 교재도 개발하고 있다.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학교나 연구원들은 각 군데에서 연구를 하는 분야와 접근이 특징이 있다. 발표에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다.

위 내용을 분석한 기반으로 러시아 한국학의 세계 한국학에의 기여 현황에 대한 결론을 지어 보겠다.

유럽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중·동유럽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김소영(소피아대학교)

최근 K-pop,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인기로 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초,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 1, 2, 3 외국어로 채택하여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 한국어에 대한 유럽인들의 생각이 과거에 비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2021년 유럽에 있는 한국교육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 45개교, 프랑스 45개교, 독일 44개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여 정규, 비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¹⁾ 코로나 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해외 한국어 학습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어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이후 한국은 안정된 보건 의료 체계와 사회적 결집력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미지가 상승하였다. 또한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영화시장에서 세계적인 화제가 된 ‘기생충’과 ‘미나리’ 등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다.

동유럽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냉전 시기 북한과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수교를 하고 6·25 전쟁 원조와 복구 지원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동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비에트 연방국의 일원으로 북한과 다방면으로 교류를 하였다. 50년대 초반 6·25 전쟁 후 전쟁고아들이 위탁 교육을 받기 위해 동유럽 국가로 갔고, 전쟁 복구를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북한 젊은이들이 동유럽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동유럽 국가와 북한은 학생 교류를 시작한다. 동유럽 국가 학생들은 북한과의 교육, 문화 교류 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유학을 갔고, 폴란드(바르샤바대)와 체코(프라헨대)는 50년 초 자국으로 돌아온 현지인이 ‘조선어학과’를 개설하여 ‘조선어’를 가르쳤다. 헝가리의 경우는 폴란드, 체코보다 약 27년 후인 70년대 말부터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조선어’ 강사는 북한으로 유학을 갔다 온 현지인들과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인 교수였다. 그 당시에는 ‘조선어’ 즉 북한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1990년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경제, 문화 교류 등이 활발해지자 점차 북한말 대신에 남한말을 가르치게 된다. 90년 수교 후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어 교재 지원,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 등 한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어 수업에서 남한어를 가르치고 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 등으로 유럽 공장지로 부상하였고 한국 기업도 V4²⁾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 친환경 정

1) 2021/22학년도 기준, 영국 내 한국어 채택 초, 중등학교 수: 초등 19개교, 중등 26개교, 총 45개교 [출처: 주영국 한국어 교육원]

2020년 12월 기준 프랑스 내 한국어 채택 초, 중등학교 수: 총 45개교 [출처: 주프랑스 한국어 교육원]

- 한국어 정규 수업(제 2,3 외국어, 한국어 국제섹션) : 21개교

- 한국 아틀리에 : 24 개교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독일 내 한국어 채택 초, 중등학교 수: 총 44개교 [출처: 주독일 한국어 교육원]

2) 1991년 헝가리 비셰그라드(Visegrad) 에서 결성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협의체

책에 따라 최근 들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전환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V4 국가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한국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발칸반도는 유럽의 동남쪽 지역으로 구유고슬라비아연방 국가(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알바니아가 속한다. 이들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연방은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자적이고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알바니아도 냉전 시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가 많지 않았던 폐쇄된 사회였다. 스탈린이 죽은 후 흐루시초프의 반스탈린 노선 강요와 경제 간섭, 유고슬라비아와 화해 등으로 1961년 소련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립 중이던 중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1970년 중국이 미국에 접근하자 이를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여 중국과의 관계조차 냉각되는 등 동유럽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소련 붕괴 후에 공산 정권의 몰락에 따라 발칸반도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 중부유럽과는 달리 한국어 교육도 한국과 수교를 한 1990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현재 대학 기관에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된 나라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3개국이다. 구유고슬라비아연방 국가들은 1992년 유고슬라비아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했고, 한국과의 교류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유고슬라비아가 7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교류도 늘어났고, 한류 팬들이 생겨나면서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하거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반과 한국문화반을 운영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올해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다.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2년 소피아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처음 열었다. 1995년 소피아대학교 내 동양어 문화센터에 한국학 전공을 개설하였고, 이후 동유럽 최초로 대학원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한류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소피아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어능력시험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소피아대에서 2021부터는 토픽 점수가 3급 이상이면 소피아대 한국학과 입학전형의 필기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국어 시험으로 개발된 토픽시험을 불가리아대학(해외대학)에서 인정하여 입학전형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국 학과가 개설된 세계 대학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이는 소피아대학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높이 평가하고 불가리아 내 한국학의 발전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불가리아 교육부에서는 2022년부터 수능시험에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므로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류 열풍으로 최근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는 이미 미디어와 한류를 토대로 한국 문화와 대중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한국학과에 오기 전, 인터넷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사설학원과 고등학교에서 기초 한국어를 미리 학습하고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유럽 내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학 발전의 토대가 되고 이들을 한국학의 학문 후속 세대로 건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불가리아의 한국어 학습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케이팝, 특히 BTS의 인기 때문이다. 2010년 불가리아에서 한류 열풍이 일면서 30대 이상의 여성 팬들이 주로 한국어를 배웠으나 그 후 청소년 K-pop 팬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학습자 연령도 10대, 20대로 낮아졌다. 이들은 K-pop 댄스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만나서 춤을 추거나 콘서트를 열고 그들의 부모도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등 온 가족들이 드라마, K-pop의 팬이 되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층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어 강사 지원, 문화 교구 및 교재 지원 등으로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현대 문화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국가의 교육부, 현지 학교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사 워크숍, 문화강좌 등을 조직하여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교수 역량을 함양하고,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사회, 문화적 시야의 지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그 성과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일차: 글로벌 신진연구자 학술포럼

한문학·고전문학

연보에서의 世系·紀年·記事의 역할과 의미

최혜미(고려대)

본고에서는 연보의 구성 요소 가운데 世系·紀年·記事에 주목하여 이들의 역할과 의미를 구명하고 연보의 요소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형태와 내용을 구성해가는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연보에 포함된 世系는 譜主의 직계 조상과 후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편집한 族譜이다. 세계에서 가문의 始祖·보주·편찬자는 각각 세계의 시작점과 경유점·도착점을 이루며, 유력한 가문일수록 세 지점 사이에 名祖·顯祖가 포함되어 가문의 명예를 더해주기도 하였다. 시조로부터 보주까지의 계보는 대개 단선적으로 구성되어 존귀한 가문으로서의 연원과 위상을 보여주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보주에서 편찬에 참여한 후손대까지 확산되는 계보는 가문과 보주를 통해 확보된 권위를 후손에게 연결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물론 족보와도 유사한 것이지만 문집과 연보는 가문의 역대 선조 가운데 유력한 인물을 선별하여 편찬되는 만큼, 여기에 부록된 세계는 보주와 후손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혀주는 것에 주된 역할이 있다.

紀年은 연보의 연도 표기법으로서, 보주가 속한 시공간의 질서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형태의 연보에는 중국의 연호와 干支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주조였다가, 이후에는 『주자연보』에 사용된 기년법이 일반화되었다. 17세기에는 강화된 尊明排淸 의식의 영향으로 기년의 첫머리에 大明이나 皇明을 부기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명의 멸망 이후의 기년에 대한 고민은 다양한 표기법을 낳았는데, 모두 청나라 연호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기피한 표기 형식이라는 점에서 小中華의 세계관 속에서 저마다 적합한 기년법을 모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淸日戰爭 이후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종언을 고한 뒤에는 중국 중심의 기년법도 함께 흔들리는 양상이 확인된다.

記事는 연보의 내용으로, 보주의 삶에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실을 선별한 것이다. 연보는 대개 정치적·학문적으로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해당 인물의 명예로운 행적이 연보의 내용을 이루었다. 편찬자들은 연보가 현실 정치에 보탬이 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고 여겼기에, 연보가 다루는 삶의 내용은 대개 역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물론 그 범주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존재하였다. 이는 역사가 된 과거 인물의 행적이 현실에서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권위를 생산하기 위해 연보가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丁酉再亂 종전 이후 重臣들이 주도한 조선의 관각 문화와 그 시대적 함의

심규식(고려대)

정유재란이 종전된 1599년부터 癸丑獄事 직전인 1612년까지는 16세기 중반의 목릉성세에 관직에 진출한 중신 세대가 정치와 관각문학의 주도권을 점유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備邊司의 상설 정치기구화로 인해 정치에서 독점과 배제의 양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선조 역시 왜란으로 인해 손상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후대의 換局과 비슷한 방식으로 당파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인은 정권을 장악한 서인·남인계 중신들로부터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균열을 내는 한편, 자신들의 당파 내에서도 갈등을 반복했다. 이러한 정국은 광해군 초기까지 이어져, 서인계 문인 洪千璦가 對策文에서 광해군에게 복인을 배척하고 기득권 중신들을 존중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데 이르렀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중신들은 관찬 서적 출판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 취향을 지속적으로 관각에 포섭하고, 그 외의 문화 지향은 배제했다. 전쟁 전의 經書諺解 작업을 계승하여 전후에 완성된 『周易諺解』는 서인 尹根壽의 지휘 하에 程頤의 程傳과 朱熹의 本義 양 쪽을 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희의 본의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崔岴의 의견은 묵살되어, 최립은 개인적으로 『周易本義口訣附說』을 편찬해야 했다. 서인 李恒福은 訓鍊都監 都提調로서 훈련도감의 출판 기능을 장악하고 安平大君의 庚午字를 바탕으로 한 庚午字體 訓鍊都監字를 제작했다. 이를 활용해서 이항복은 윤근수 등 서인계 관각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朱文公校昌黎先生集』, 『史纂』, 『小學諸家集註』 등의 서적을 간행하고, 최립의 古文에 관한 해석을 배제했다.

하지만 전후 외교로 인한 관각문과 창화시 창작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한정된 관각문인으로만은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신들은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후배 관각문인들을 양성하고 집단의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李好閔은 嶺南東道會를 후원하여 한양에서 벼슬하는 영남 退溪學派 문인들을 결집시켰다. 柳根은 遠接使가 製述官을 동행하는 제도를 정례화하고 讀書堂을 재설치하여 당대의 젊은 문인들을 발굴하고 관각의 공적 장에서 그 문학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외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각문인들이 활동했으며, 李爾瞻 등에 의해 전후 중신들의 기득권은 붕괴하게 되었다.

두목의 「장보고·정년전」 창작 배경 고찰

육가(郁嘉, 중국 남경대)

해상왕이라 불릴 만큼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보고는 한·중·일 3국의 해상 무역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노비매매 사건을 해결한 한민족의 영웅이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주로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무역 활동에 집중하여 연구해왔다. 다만 당나라 문인 杜牧의 시문 전파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장보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다름 아닌 두목이 기록한 「장보고·정년전」이며, 장보고에 관한 연구 또한 대부분 여기에 근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목이 언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전기를 썼는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두목이 전기를 쓴 시기에 대해서 현재 국내외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833-835년 두목이 揚州에서 벼슬을 하면서 장보고와 정년의 이야기를 듣고 전을 지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장보고가 죽은 후의 849년에 지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문헌적 근거의 부족으로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본고는 문헌학적 시각에서 관련 사료를 재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목의 「장보고·정년전」 편찬 시기 및 그 배경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해보았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장보고는 839년에 신무왕을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한다. 그런데 두목의 「장보고·정년전」에는 이미 난을 평정하고 장보고가 재상으로 임명된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839년 이후에 전기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裴延翰의 『변천문집』 서문에서 “나라가 망하려 할 때 현인 하나만 얻으면 결코 망하지 않으므로 「장보고·정년전」을 지었다”라는 구절은 두목의 창작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 두목은 833-835년 牛僧孺가 淮南節度使 재임 기간에 掌書記 직을 맡은 적이 있어 牛李黨政에 휘말렸다. 그 후 牛黨이 잠시 실세했을 때 두목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李黨의 수령인 李德裕에게 「上淮南李相公狀」을 올렸지만 등용되지 않았으며, 會昌 2년(842)에는 黃州로 추방되었다. 그 후에도 두목은 이덕유에게 계책을 올렸지만 이덕유가 실세하기까지도 그의 정치적 포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두목은 이덕유가 줄곧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武宗(841-846) 때 “붕당을 원수처럼 싫어하는(疾朋黨如仇讐)” 그에게 등용할 만한 ‘賢人’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현인’이 중용되지 못하고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이 전기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고전시가의 정치적 독법을 위한 시론
- 景幾體歌 <關東別曲>의 공간표상 해석을 중심으로 -

박영재(고려대)

[차례]

1. 서론
2. 한국 고전시가에 대한 정치적 독법의 필요성
3. 경기체가 <관동별곡>의 공간표상
4. 결론

본 발표문은 한국 고전시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정치적 독법’이 지닌 가능성을 예증하기 위해, 麗末의 문인 謹齋 안축(安軸, 1287~1348)의 景幾體歌 <關東別曲>을 ‘정치적 독법’으로 엮어 해석한다. 이는 안축의 경기체가 <관동별곡> 속 關東 지역의 공간표상이 작가가 드러내는 同一視의 메커니즘과 어떻게 결합하였는지를 정치적 독법을 통하여 분석하는 작업이다. ‘江陵道存撫使’로서 수행한 관동 순찰의 여정 속에서 작가가 만난 四仙 전설의 공간들이 작가가 정치적 개인으로서 처했던 맥락과 결부되면서, <관동별곡>이 관동지역의 공간을 심미적 체험-완상의 대상을 넘어선 동일시의 공간으로 의미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발표문 후반부의 작업가설이다.

안축이 충혜왕 즉위년(1330) 5월 江陵道存撫使로 발령받은 시기에 창작한 <관동별곡>은, 양주동의 『여요전주(麗謠箋注)』³⁾를 통해 처음으로 語釋이 시도되었다. 이후 김창규⁴⁾, 박일용⁵⁾, 김동욱⁶⁾, 최용수⁷⁾, 박경주⁸⁾, 고정희⁹⁾, 박노준¹⁰⁾, 신영명¹¹⁾, 김상철¹²⁾, 김아연¹³⁾ 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오류가 있는 양주동의 어석에 크게 의존하였기에 작품 해석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필자는 석사학위논문¹⁴⁾을 통해 양주

3) 양주동, 『여요전주(麗謠箋注)』, 을유문화사, 1947.

4) 김창규, 「謹齋詩歌放: 關東瓦注를 中心으로 한 關東別曲의 考察 및 謹齋와 松江의 關東別曲의 對比」,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2, 영주경상전문대학, 1979, 15~41면.

5) 박일용, 「경기체가의 장르적 성격과 그 변화」, 『한국학보』 13, 일지사, 1987, 40~59면.

6) 김동욱, 「근재 안축과 그 시·가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김동욱, 「<관동별곡>·<죽계별곡>과 안축의 가문학(歌文學)」, 『반교어문연구』 1, 1988.

7) 최용수, 「안축의 <관동별곡>에 대하여」, 『배달말』 23, 1998, 251~282면; 최용수, 「안축의 <죽계별곡>에 대하여」, 『모산학보』 10, 1998, 189~213면.

8) 박경주, 「고려 후기 문학 담당층의 전개양상과 경기체가」,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9) 고정희, 「원 복속기 신흥사대부의 계급의식과 안축의 경기체가」, 『한국문화』 3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10) 박노준, 「<한림별곡>과 <관동별곡>(겸 <죽계별곡>)의 거리」,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11) 신영명, 「경기체가의 갈래적 성격과 안축의 자연관」, 『우리어문연구』 9, 우리어문학회, 1995, 265~284면.

12) 김상철, 「안축의 <관동별곡>에 나타난 정서와 그 표출방식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1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117~145면; 김상철, 「안축의 한시와 가문학 연구」, 『고려시대 시가의 탐색』, 경인문화사, 2004, 1~216면.

13) 김아연, 「안축의 <관동별곡>에 구현된 목민의식」, 『한국시가문화연구』 3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91~135면.

동의 어석을 일부 재고하여 작품해석의 구도를 달리한 바 있다. 이 발표문은 학위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경기체가 <관동별곡>의 공간표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독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해석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세계를 상정하고 이를 관찰하는 근대적 주체를 발명해낸 서구근대의 문학론에 경도되어, 표의문자로서의 漢文脈으로 대표되는 중세 동아시아 문학전통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景幾體歌 <관동별곡>에서 관동지역의 공간이 어떠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그 공간표상에 결부된 동아시아 전통의 ‘풍경’ 혹은 山水 인식을 정치적으로 독해할 것을 요구한다. 江陵道存撫使라는 지방관의 직임을 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좌천당한 처지였던 安軸은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면서 관동의 경관을 이념화하였다. 이 과정에 나타난 시공간의 교차와 동일시의 매개로서 경기체가 <관동별곡>의 공간은, 경기체가의 작품세계가 ‘객관적 세계’를 옮겨온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논의로는 포섭할 수 없는 공간표상이었다. 이는 정치적 독법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의미망이 드러날 수 있는 텍스트였던 것이다.

14) 박영재, 「안축 경기체가의 의미지향과 계승양상」,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20.

<형제투금>, <지성이면 감천> 설화의 상호교차적 전승 양상

조보운(고려대)

본고는 서로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설화 <형제투금>과 <지성이면 감천>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두 설화 간의 상호교차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과정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 서사의 일부를 <형제투금>에서 가져온 것으로만 보는 기존 논리를 재고해 보려는 시도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설화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결말의 서사 지향에 따라 <형제투금>의 경우, 주인공이 투금하는 서사 'A'와 획금하는 서사 'B'로 나누었다. 그리고 <지성과 감천>에서는 주인공이 획금하고 신체 불구도 해소하는 서사를 '가'로, 획금은 하지만 신체 불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서사를 '나'로 구분하였다. 한편, 가형 중에서 분금 화소가 있는 각편들을 특별히 가리킬 때에는 '가-분금'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바는 B, 가, 나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금-구령이 변환'이나 '분금' 화소의 생성 경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A형 서사에서 비약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형성된 B형이 <지성이면 감천> 설화에 영향에 준 것으로 파악하였다. 두 설화 사이의 이러한 단선적 방향으로의 전승론은 가장 먼저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A에서 출발하여 그 유사성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각편들을 나열, 그 파생 순서를 확정하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우선, <형제투금>보다 <지성이면 감천>이 더 나중에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 물론 <형제투금> 안에서의 전승 양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A형이 B형보다 선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설화인 <지성이면 감천>이 <형제투금>보다 나중에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근거는 없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논리는 구비설화의 서사 창출에 나타나는 보편적 창작과정을 간과한 점이 보인다. 구비설화의 경우 새로운 내용의 완전한 창작보다 기존의 이야깃거리에서 일부를 차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A \Rightarrow B$ 로의 변환과정에 대하여 다른 설화의 개입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논리의 빈틈을 메우고자 두 설화의 형성에 관하여 '상호교차'의 가능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추론한 두 설화 사이의 교섭 과정과 각편의 전변 양상은 다음과 같다. 두 설화는 형제나 형제에 준하는 인간관계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 주인공들이 금을 버리는 행위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점을 매개로 서서히 교차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가형의 금-구령이 변환 화소가 A형의 변이에 영향을 미쳐 B형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화소의 원래 자리가 가형일 가능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화소는 금덩이가 다른 이가 아닌 주인공에게 속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금-구령이의 변환은 초월적 존재가 착한 이들의 심성에 감복하여 마련한 필연의 결과이며, 이것은 가형의 결말에서 형제가 부처의 가피를 입어 신체 장애를 해소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다. 또한 이 화소가 담고 있는 종교적, 환상적 분위는 가형 서사의 미학적 특징과 통일성을 이루므로 해당 화소의 원위치를 본고와 같이 보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두 설화의 교섭에서 다음 양상은 B형에 존재하던 분금 화소가 다시 가형에 영향을 미쳐 가-분금형이 파생된 것이다. 이것은 행인에 의한 분금 화소가 본디 가형이 아닌 B형에 먼저 존재했을 것을 전제하는 논리이다. 획금을 통해 물질적 욕망을 지향하는 B형은 반드시 분금 화

소를 필요로 한다. 금이 상대에게 잠시 이동하는 순간 악심을 품는 형제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금을 통하여 각자의 이익을 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가형의 경우, 분금 화소의 본래 자리가 되기에는 그 결말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 나중에 온전히 하나의 공양물로 바쳐질 것을 굳이 이전에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과 유사한 불교 설화들에서 두 주인공이 습득한 공양물을 나누지 않고 함께 시주하는 것에서 그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형의 일부, 즉 가-분금형에서 금을 나누는 화소가 등장하여 문제가 된다. 이것은 서사적으로 불필요한 장치가 어떻게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요구한다. 이 문제는 기억의 혼동을 일으킨 가형의 화자가 B형의 분금 화소를 이에 적용하여, 가형 안에서 분금 화소가 있는 유형을 파생시켰을 가능성으로 해명될 수 있다. 한편, 가-분금형은 다시 B와의 상호교섭을 지속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신체 불구의 해소보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나형으로까지 전변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설명한 두 설화 사이의 상호교차적 전승 양상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형제투금>		↔	<지성이면 감천>			
1단계 교섭			2단계 교섭		3단계 교섭	
A ↔ 가			B ↔ 가		B ↔ 가-분금	
↓			↓		↓	
B			가-분금		나	

본고에서는 <형제투금>과 <지성이면 감천>이 서로 비슷한 화소를 공유하고 있는 원인을 상호교차적 전승 때문으로 추론하였다. 이것은 설화의 변이 연구에 있어 일방적 영향 관계 위주로 파악해 왔던 기존 연구방법을 벗어나, 두 설화의 양방향적 상호교섭이 가져온 역동적 전변 과정을 상상해 본 것이다. 물론 이 글의 주장도 하나의 가능성에 머문다. 다만, 이 연구가 두 설화에 대한 단선적 전승 과정만이 아니라, 상호교섭적인 관점의 전승 양상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면 논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문학·문화컨텐츠

일제시기 대만과 한국 초등학교 창가집 비교 -『공학교창가집』과 『신편창가집』을 중심으로

왕시문(王詩雯, 대만 국립정치대)

제2세계대전 전에 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두 나라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시기가 된 후, 대만에서는 1898년 7월 대만총독부가 반포한 <대만공학교령(臺灣公學校令)>, 한국에서는 1911년8월 조선총독부가 반포한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가 설립되었고 식민지 교육이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 제일 먼저 교육 의무화된 단계는 바로 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창가(唱歌)란 과목이 있었다. 창가는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깔고 노래를 부르는 매우 기초적인 음악 장르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제시기 전, 개화기라는 시기에 학부 편찬한 최초 학교용 창가집 『학부창가집(學部唱歌集)』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기반으로 조선총독부가 1914년에 내용을 더 식민지 교육에 맞게 개편하여 출판한 『신편창가집(新編唱歌集)』이 있다. 반면에 대만은 한국보다 이르게 일본의 식민지 되었기 때문에 개화기와 같은 전적으로 문명 개혁하는 시기를 경험하지 못하며 최초 등장한 창가집은 대만총독부 1915년 발행한 『공학교창가집(公學校唱歌集)』이다.

『공학교창가집』과 『신편창가집』이 두 창가집은 일제시기 식민 교육 정책 하의 최초 국정 창가 교과서로서 일제 때 두 나라 창가 교과서 발전의 바탕으로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창가집을 비교 분석하면 대만과 한국의 창가교과서의 편찬 의도뿐만 아니라 두 창가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 두 교과서를 정책, 형식, 가사, 음악 등 면으로 살피고 두 총독부가 창가집을 편찬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지를 가급적으로 탐구하여 대만과 한국 창가집 편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대만과 한국의 창가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일본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함께 고찰하였다.

주제어: 창가, 일제강점기 창가, 한국 창가, 대만 창가, 식민지

<춘향전> 영역본 一考察

이창희(고려대)

19세기 말에 들어서는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1886-1934)와 같은 재한일본학자를 비롯하여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 그리고 리차드 러트(Richard Rutt, 1925-2011) 등으로 학맥이 이어지는 다수의 선교사학자(scholar-missionary)들에 의해 한국 고전의 외국어 번역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춘향전>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번역가들의 관심을 끄는 텍스트 중 하나였다. <춘향전> 역본은 1882년, 20회에 걸쳐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가 오사카아사히 신문(大阪朝日新聞)에 연재한 『鷄林情話 春香傳』을 시작으로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중국어 심지어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었다. 각각의 번역텍스트들은 번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만큼이나 번역 평가 및 비평이 진행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당 역본이 각 문화권에서 정전(canon)으로 구축되는 과정에 대한 규명까지도 시도된 바 있다. 이 글에서 집중하는 <춘향전> 英譯本은 한국문학의 번역 서지 목록이 학계에 제공되며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호러스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과 러트의 영역본의 원천텍스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개는 영문잡지 The Korea Magazine 소재 게일의 번역 기사인 “Choon Yang”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게일을 제외하고도 <춘향전>은 알렌, 어커트, 리차드 러트 등의 한국 학자들에 의해 번역되었지만 특히 알렌과 어커트의 역본의 경우 개작 양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원천텍스트로의 충실치 못한’ 번역으로 저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바로 이러한 개작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번역가들이 텍스트에 어떠한 방식으로 춘향을 형상화하였을까?” “각 번역가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춘향전> 영역본의 개작 양상은 특히 춘향을 형상화하는 방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이몽룡과 춘향의 잠자리를 의도적으로 번역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각종 에로티시즘적 요소가 누락되어있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가 추가하거나 생략한 것, 선택한 단어들, 그리고 문장 배치 뒤에는 번역가의 문화가 놓여있다. 그렇다면 번역가들이 구현하고자 한 춘향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둘째, “원천 및 번역 텍스트의 독자 간의 문화적 지식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춘향의 형상화를 포함한 그들의 스코프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각 번역가들은 어떠한 번역 전략을 활용하였을까?” 번역 등가어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양의 이 문화 요소 등을 번역텍스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이하였을까?”

이에 이 글은 기디온 투리(Gideon Toury)의 관점에 의거하여 도착어문화권 번역가에 의해 수행된 ‘언어 상호간의 번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춘향전> 英譯本에 구현된 춘향의 형상화를 문화적 전이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각 영역본에 구현된 번역 전략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각 英譯本에 삽입된 서문 등의 페러텍스트(paratext)를 검토하며 번역 목적, 목표수신독자, 그리고 번역가의 작품 인식 등을 통해 각 번역가들이 주목한 문화적 코드(code) 및 춘향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원천 및 번역 텍스트의 독자들 간의 지식적, 문화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각 번역가들이 선택하고 활용한 번역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녀가 스스로 복수하고 악한 세력을 제거하려고 한다’

－ 중국 越劇 <춘향전>의 “變”과 “不變”

“她还要自报大仇诛强凶”－越剧《春香传》的“变”与“不变”

이금양(李金陽, 중국 사천외대)

戲曲은 시청각의 방식으로 독자에게 서사해서 글자 몰라도 감상할 수 있다. <춘향전>은 조선 국립고전예술극장 창극<춘향전>을 底本으로 중국에서 경극(京劇), 월극(越劇), 조극(潮劇), 평극(評劇), 황매극(黃梅戲), 예극(豫劇), 소극(蘇劇), 등 10여 종 중국 전통극의 종류로 객작되고 각색, 및 공연된다. 이상 극의 공연범위 폭이 넓고 시청자의 양이 많다. 월극의 <춘향전>이 월극의 대표성이 있는 레퍼토리로서 이재도 자주 공연되고 큰 영향력과 활발한 생명력이 보여준다. 월극<춘향전>의 탄생은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과 조선의 상호 교류의 우연한 만남의 결과에 불과하지만 그 각색 및 공연 과정 중에서 수용주체는 도대체 무슨작용을 했는지 고찰해야 한다. 중국 월극판<춘향전>은 원작의 전체 서사구조를 유지하고, 이야기 줄거리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고, 원작보다 일부분 플롯을 삭제하고 또한 새 어구를 붙인 것은 우연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다. 본 발표문은 바로 이러한“變”과 “不變”의 심층 원인을 월극의 발달사, 예술 특징, 희곡 언어 특성, 그리고 당시의 사회 환경, 주요 “戲曲改革”등 문예 활동에 의하여 전해주는 문예사상 등 중에서 구하고 싶다.

戏曲以视和听的方式向读者叙事，不必依赖于文字的识别和阅读。在中国，有京剧、越剧、潮剧、评剧、黄梅戏、豫剧、苏剧等十几个剧种对《春香传》进行了改编、移植和演出，这些剧种总的演出覆盖范围、受众群体数量是相当可观的。其中，越剧的《春香转》是此剧种具有代表性的剧目之一，至今依然活跃在中国的戏曲舞台上，常演常新，其中的“爱歌”更是脍炙人口的经典唱段，显示了这部在偶然之下经由朝鲜唱剧《春香传》改变而成的地方戏剧目强大的生命力。越剧《春香传》的产生在表面看来是一个在中朝友好关系大背景下双方互动偶然相遇的结果，然而在这不可缺少的偶然相遇之后，在改编与演出中其对原整体叙事结构的保留、故事主线的凸出、情节和语句的增删、人物形象的嬗变，是与越剧剧种的发展历程、艺术特性和戏曲语言特征，以及主要通过“戏曲改革”等社会文艺活动体现出来的彼时的文艺主流思潮分不开的。

1930년대 대만문단에서의 장혁주 문학이 지닌 영향력과 그 매력

조가유(경북대)

식민지시기의 한국문학사에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대륙의 문인들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은, '혜성' 같은 작가 한 명이 있었다. 그는 곧 조선말로 자유롭게 발표하지 못해 일본문단을 통해 작가 생애를 펼쳐게 된 대구 출신의 장혁주이다. 장혁주는 조선에서 배운 일본어를 사용하여 1930년 10월에 「백양목」이라는 단편소설을 통해 일본문단에서 등단했다. 그는 1932년 4월에 『개조』에서 「아귀도」를 발표하고 조선인 작가로서 수상(受賞)을 한 후 대만문단에서까지 주목을 받아, 1936년 도일한 후에도, 1937년 7월 중일전쟁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대만문단에서 나왔던 여러 문인들의 담론을 통해서 장혁주가 쓴 문학작품들이 양쿠이, 장문환, 뤼허뤄 작가에게는 모범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에서 장혁주 소설과 대만의 대표 작가들의 소설과의 비교연구가 없다. 한국에서는 장혁주의 소설과 대만 작가들의 소설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2편만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만 작가들이 왜 장혁주의 문학을 좋아했는지의 원인 내지 장혁주 소설이 지닌 가치를 설명해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유럽권까지 이름이 난 장혁주의 문학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기타 조선인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훨씬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이 점은 일찍이 1933년에 장혁주 문학의 창작기법에 대해 호평을 주던 유진오(현민)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중국 연구자인 주숙하, 이동매·왕염려는 '조선과 장혁주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고', 중국문단에서는 그를 조선의 대표 작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라는 시국 하에서 일제가 침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장혁주를 좌익혁명의 일환으로 보고 저항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던 정치적 타산'때문이라 했다. 이 관점은 당시 중국의 수용자가 식민지인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을 동일시하고, 그것을 국제 시야 속의 조선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유명했던 장혁주의 소설을 받아들였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장혁주의 소설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다. 중국에서 마태상 연구자는 대만 작가들이 당시 장혁주 콤플렉스에 시달렸다는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장혁주 현상을 이해했으며,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식민 종주국과 식민지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 기인한 문제가 있는 현상이라 지적했다.

본고는 장혁주가 1932년부터 조선문단에서 보편적이지 않는, 특수적인 조선문학을 쓰는 작가였다는 것. 그의 작품들은 대만문단에서 창작 시의 보편적인 참조대상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장혁주 문학의 영향력을 조명하기 위해서 대만 작품들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겠다. 공통적인 부분을 통해서 참조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차이점을 통해서 장혁주 문학의 조선적인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혁주의 문학과 양쿠이, 장문환, 뤼허뤄의 문학의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고는 우선 농민노동자들이 받는 착취의 유형을 중심으로 다룬다. 결과적으로는 장혁주 문학이 지닌 매력은 사기 형태의 착취에 대한 세밀한 묘사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만 작가들은 거기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각자 대만 사회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형태의 착취로 변환해서 써나갔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장혁주는 리얼리즘에 충실한 기법을 활용해서, 뛰어난 조선문학을 창작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사반장, 한국형 탐정의 탄생

송지혁(고려대)

본고는 1970년대 <수사반장>의 탐정형 인물의 변화를 통해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추리를 수용하는 양상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추리물은 탐정-범인-희생자의 인물구도를 바탕으로 범죄의 발생과 그 해결을 다루는 예술양식의 통칭이다.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범죄(주로 살인)의 발생과 해결은 추리물을 통해 수용자는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의 존재를 통해 과학에 대한 신뢰, 급격한 대도시화, 형사 및 사법 제도 등과 같은 근대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탐정을 통해 경험하게 된 새로운 세계는 사법적 심판과 응분의 처벌을 기대하게 만들고 사회현상에 대해 근대적인 태도를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진영, 102)

추리물을 비주류적인 장르로 여겨지던 인식은 텔레비전 드라마 <수사반장>의 존재와 함께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수사반장>은 특정한 장르물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여겨지는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다양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며 동시에 미학적 실험과 산업적 요구가 초창기 텔레비전드라마를 통해 다양화되는 매우 중요한 국면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청각으로 구현된 감정적인 탐정들을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의 관습에 맞춰 수용되는 현상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리얼리티를 확보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은 형사와 범인의 정서적인 관계를 통해 범죄를 해석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닮아있다. 범죄에 대해서 당시 시청자들이 세계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조응하며 1970년대의 수사드라마 붐으로 이어나가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수사반장>의 인간적인 얼굴은 연쇄살인범의 등장과 함께 굴절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현실에서 마주친 얼굴없는 범죄에 대한 공포는 유신 정권의 무능함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도 여전히 막을 수 없는 강력 범죄자는 민족의 이름으로 통합시킬 수 없는 체제와 현실 외부의 존재들이다. 박반장을 비롯한 한국의 탐정들이 연쇄살인범의 뒤를 쫓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현실의 범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비관적인 시대 전망은 수사드라마의 존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신정권의 종말 앞에서 수사드라마는 텔레비전드라마를 둘러싼 정권과 제작주체, 시청자 간의 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수사드라마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비판과 옹호의 국면은 1970년대의 텔레비전드라마가 결코 단일하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사반장>은 새로운 감성을 가진 텔레비전드라마였지만 감정적인 탐정의 형상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정서적 동일시를 끌어내기도 했다.

1970년대 복잡다단한 굴곡을 거처온 <수사반장>은 체제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색채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제 문제는 <수사반장>이 파생시킨 수사드라마라는 형식이 1970년대의 반공물과 1980년대의 범죄물을 통해 굴절되고 변모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리물의 장르적 관습이 어떻게 한국적인 것으로 내면화되고 수용되었는지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국어학·한국어교육학

현대 한국어 ‘섭섭하다’와 ‘서운하다’의 의미 연구

박아름(고려대)

유의어는 어휘의 의미 연구에서는 물론 언어 학습에서도 어휘력 확장의 주요 도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유의어 의미의 정확한 기술이 사전 편찬뿐 아니라 언어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어사전에서 동어 반복을 통한 의미 기술을 함으로써 그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유의어를 변별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서의 필수적 역할을 하지만 의미 차이를 변별하기 어려운 감정 형용사 가운데 한국어를 제 2언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초급 수준에서 접하게 되는 ‘섭섭하다’와, 선행 연구에서 유의어로 다루어졌으나 그 의미가 변별되지 않았던 ‘서운하다’에 대한 의미 분석을 통해 이 두 단어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별적 의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 국어사전을 보면 ‘섭섭하다’의 뜻풀이는 ‘서운하다’와 ‘아쉽다’로, ‘서운하다’의 뜻풀이는 ‘아쉽다’와 ‘섭섭하다’로, ‘아쉽다’의 뜻풀이는 다시 ‘서운하다’로 서로 순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형용사 ‘섭섭하다’의 의미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 「연세 한국어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998)」, 「우리토박이말사전(한글학회, 2001)」, 「조선말큰사전(한글학회, 1957)」에서 각각 살펴, 사전에 따라 해당 단어를 다의어로 보는지 여부 즉 의미의 양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사전 간 상이한 뜻풀이를 동일하게 정리해 보았다. 용례 검색 및 공기어 분석을 위해서는 위 다섯 개의 사전에 실린 예문 외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SJ-RIKS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를 사용하였다.

기존 국어사전에서 3개의 의미를 가진 다의어로 기술되었던 ‘섭섭하다’는 그 용례를 바탕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이 말한이의 기대에 어그러져 마음에 불만스럽다>와 <어떤 일이나 사람이 말한이에게 미련이 남는 느낌이 있다>로 새롭게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어 분석을 통해 ‘서운하고 야속하다, 서운하고 못마땅하다, 서운하고 괘씸하다, 서운하고 분하다, 서운하고 화가 나다’는 함께 어울려 쓰일 수 있지만, ‘야속하다, 못마땅하다, 괘씸하다, 분하다, 화가 나다’가 ‘섭섭하다’와는 어울려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운하다’는 ‘원망, 눈물, 서러움, 노여움, 상처, 감정의 앙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와도 밀접하게 어울려 쓰이며 ‘서운함이 내 가슴을 쓰리게 했다’와 같은 표현도 가능하였으나, ‘섭섭하다’에서는 이러한 용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함께 어울려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섭섭하다’와 ‘서운하다’에 ‘안타깝고 허전하고 아쉬운’ 기분이 섞여 있지만, ‘서운하다’와 달리 ‘섭섭하다’에는 ‘야속하고 못마땅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고 분한’ 기분까지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운하다’는 ‘섭섭하다’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한 감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운하다’의 의미를 ‘섭섭하다’의 동의(同意)가 아닌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고 야속한 느낌이 있다’로 새롭게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에서 그 변별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던 형용사 ‘섭섭하다’와 ‘서운하다’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기술하여 기존 국어사전의 의미 기술이 지닌 동어 반복 문제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변별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한국어 유의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다루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불가시적인 사동화의 ‘시키-’

채예나(일본 도쿄대)

일반적으로 사동형 ‘시키-’가 동사와 결합하면 논항이 하나 증가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사와 ‘시키-’가 결합해도 논항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오래 전부터 관찰되어 왔다. 논항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시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이 타동형 ‘하-’와 행위주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1) 저는 진한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강조{했/시켰}습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논항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하-’와 동일한 사건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시키-’ 중에는 예문 (2b)와 같이 의미적으로 새로운 참여자가 도입되었음에도 문장 안에 그 참여자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2) a. 정부는 확진자들을 격리했다.
b. 정부는 확진자들을 격리시켰다.
(= 정부는 보건당국에 확진자들을 격리시켰다.)

鄭聖汝(2006)는 피사동주가 문장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Kittila(2009)에서는 의미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하지만 문장에 논항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를 ‘covert causativization (불가시적인 사동화)’으로 명명하고, 피사동주 이외의 의미항들이 나타나지 않는 예도 소개하고 있다.

불가시적인 사동화의 ‘시키-’는 논항 증가가 필수적인 전형적인 ‘시키-’와 논항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타동화의 ‘시키-’의 중간적인 존재이다. ‘시키-’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시적인 사동화의 ‘시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부족하게나마 불가시적인 사동화의 ‘시키-’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가시적인 사동화’에는 논항의 불가시화가 선택적인 유형과 필수적인 유형, 두 가지가 있다. 논항의 불가시화가 선택적인 유형은 2 항동사와 ‘시키-’가 결합할 때 주로 보이며, 피사동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논항의 불가시화가 필수적인 유형은 3 항동사와 ‘시키-’가 결합할 때 관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논항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타동형 ‘하-’와 동일한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도착점이 불가시화되고 피사동주가 문장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불가시적인 사동화’의 발생에는 ‘시키-’와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도 영향을 끼친다. 2항동사의 경우에는 ①행정에 관련된 단어처럼 결정자와 실무자가 별개로 존재하거나 ②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또는 상정될 때 논항의 불가시화가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3 항동사의 경우,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고 받는 관계일 때 논항의 불가시화가 일어나기 쉽다.

【참고문헌】

鄭聖汝 (2006). 『韓日使役構文の機能的類型論研究: 動詞基盤の文法から名詞基盤の文法へ』. 東京, くろしお出版./ Kittila, S (2009). Causative morphemes as non-valency increasing devices. *Folia linguistica: Acta Societatis Linguisticae Europaeae*, 43(1), 67-94.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근거한 중국 연변조선어 단모음 체계의 구축

허진(許秦, 일본 도쿄대)

본 연구는 현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선어의 단모음을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음향분석을 통해, 그 음운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변조선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연변조선어는 함경도 방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재 서울 방언에서 사라진 악센트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센트 연구가 연변조선어 음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연변조선어 악센트 이외의 음운적 특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정밀하고 과학적인 음향분석에 의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변조선어의 음운체계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험음성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을 통해, 연변조선어 8개 단모음의 음향 특징을 고찰하고 그 음성학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단모음 체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모두 8모음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변조선어의 단모음 체계의 구축에 그치지 않고, 서울 방언 및 연변조선어의 기층 방언인 함경도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비교하면서 음성학적으로 연변조선어가 독립된 방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하였다. 먼저 서울 방언과의 비교에서 모음 /ɪ/와 /ɯ/가 모음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변조선어와 서울 방언의 단모음 체계에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인해 연변조선어 화자와 서울 방언 화자는 서로의 모음 /ɪ/와 /ɯ/의 발음을 잘못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연변조선어에서는 전설모음 /ɛ/와 /ɐ/는 모든 세대에서 명확히 구별되고 있다는 점이 서울 방언의 경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함경도 방언과의 비교에 있어서, 연변조선어와 함경도 방언의 모음 /ɪ/와 /ɯ/의 모음 공간상의 위치는 거의 일치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함경도 방언에서 확인되는 후설모음의 융합 현상이 연변조선어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함경도 사투리는 7모음 체계를 이룬다고 하지만 연변조선어는 아직도 8모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민경아 (고려대)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연구를 분석하여 국외 한국어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교육과 기술이 결합된 에듀테크(EduTec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역시 급변하는 학습 환경과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국외 한국어교육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여러 제약이 뒤따르며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국외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외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기관과 교사,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고 학습자 증가로 인하여 학습자 변인도 다양해졌으나 이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외 한국어교육에 에듀테크의 하나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융복합을 통하여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세계’로 정의하고 ‘편재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평등성, 사실성, 지속성’을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를 통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장점을 분석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외 한국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외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